



신지에 '女帝 등극' 카운트다운

세계랭킹 2위 올라 1위 가시권... 내일 삼성월드챔피언십 출전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에(21·미래에셋)가 엘리트 20명만이 출전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골프 여제' 등극을 준비한다.

14일 아간소 챔피언십에서 시즌 세번째 우승컵을 수확한 신지에는 세계랭킹에서도 3계단이나 뛰어오르며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지난 2년간 성적을 토대로 매겨지는 세계랭킹이기에 신지에는 1위로 뛰어오를 수는 없지만 올 시즌 LPGA 투어 상금왕과 다승왕, 최저타수상, 올해의 선수상까지 휩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17일(이하 한국시간)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명문 골프장 토리파인스 남코스(파72·6천721야드)에서 개막하는 삼성월드챔피언십은 전년도 LPGA 투어 상금왕, 디펜딩 챔피언, 당해연도 메이저대회 우승자 등 상위랭커 20명만이 초청장을 받는 특급대회다.

총상금 100만달러에 우승상금은 25만달러로 출전 선수들은 컷 탈락없이 나올 동안 열전을 펼친다.

신지에는 '역전의 명수', '마지막 라운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각인시키며 투주기인

막판 몰아치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간소 챔피언십이 끝나자마자 샌디에이고로 이동한 신지에는 다소 지친 상태인데다가 처음 접하는 토리파인스 코스에서 경기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

이 코스는 작년 US오픈 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왼쪽 무릎 인대가 끊어진 상태에서 19홀 연장 승부 끝에 우승한 곳으로 더욱 유명해 졌다. 삼성월드챔피언십이 여자대회인 점을 고려해 전장은 1천야드 가량 줄어들었지만 좁은 페어웨이와 깊은 러프가 선수들을 괴롭힐 전망이다.

한국 선수는 신지에는 포함해 US여자오픈 우승자 지은희(23·힐라코리아), 김민경(21·하나금융), 김승희(21), 최나연(22·SK텔레콤) 5명이 출전한다.

한국의 기업 삼성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는 대회지만 한국 선수는 1999년 박세리 이후 우승컵을 가져 오지 못했다.

올 시즌 8승을 합작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상금 랭킹 2위 크리스티 커(미국), 작년 대회 우승자 플라 크리머(미국), 부진 탈출을 노리고 있는 여제 오초아 등을 따돌리고 10년만에 우승컵을 되찾아 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립뉴스



神도 모르는 '1위전쟁'

'가을잔치' 29일 스타트

■ KIA - SK 잔여경기·일정 누가 유리할까

KIA, 이동거리 부담...LG 3연전 승수쌓기 유리

SK, 삼성·두산전 버거워...수도권서 경기 여유

호랑이의 효효일까? 비룡의 승천일까?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직행티켓의 향방을 놓고 KIA와 SK의 선두 다툼에 팬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연 누가 올 한마디로 예측불허하다.

불과 2주 전만해도 SK에 승차 6.5게임이 나섰던 KIA의 여유있는 정상 등극이 확실시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KIA가 승 보다 패가 많은 뒷걸음질하는 사이에 SK는 연승행진을 펼치며 바짝 따라붙었다. 양팀의 승패가 엇갈린다면 하룻밤 사이에 자리가 뒤바뀌는 변화무쌍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경기일정을 보면 KIA는 16일 목동에서 히어로즈와 1경기, 18~20일 광주에서 LG와 3경기, 24~25일 군산·광주에서 히어로즈와 2경기를 갖는다. SK는 16일 잠실서 LG와 1경기, 인천서 19~20일 한화, 22~23일 삼성과 2경기씩 그리고 두산과 2경기를 남기고 있다.

단순히 경기에 따른 이동거리나 장소를 따져보면 SK가 다소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남은 7경기 중 6경기를 홈에서 그리고 1경기는 가까운 서울에서 치르기 때문에 장소 이동에 따른 선수들의 피로도는 거의 '제로(0)'나 마찬가지다. 반면에 목동-광주-군산-광주를 거치는 KIA는 SK보다 훨씬 이동거리가 더 길고 그만큼의 피로는 누적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히어로즈전 이후 광주로 옮기는 KIA는 LG전이 끝나면 바로 3일간의 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전력 차질은 거의 없다. 오히려 안방에서 경기를 갖는 SK가 체력 소모가 더 클 수 있다. 총력전을 펼쳐야 할 한화·삼성·두산전에서 단 하루만의 휴식을 갖고 6경기를 해야하는 부담때문에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는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할 팀들을 보면 KIA가 SK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KIA-SK 잔여 일정 비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T 히어로즈	-	LG	LG	LG	-	-	-	-	히어로즈	히어로즈	-
W LG	-	-	한화	한화	-	삼성	삼성	-	두산	두산	-
잠실	-	-	인천	인천	-	인천	인천	-	인천	인천	-

KIA는 비록 시즌 중 호재세를 보인 히어로즈와 버거운 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13승2패1무로 승수쌓기의 최적인 팀이었던 LG를 상대로 승리를 쟁긴다면 한국시리즈 직행티켓을 거머쥐는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SK는 약체 LG와 한화를 제외하면 삼성과 두산전에서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다. 4위를 노리는 삼성과 누

구보다 SK에게는 질 수 없다는 승부욕을 보이고 있는 두산이 SK의 선두 등극을 적극 지지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KIA가 한국시리즈 직행을 확실히 결정짓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에서 선발 투수진의 구위 회복, 수비진의 집중력 그리고 중심타선의 거포 재가동 등 공·수에서 특유의 저력이 되살아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한기주 1군 복귀

KIA 투수 한기주가 두 달 만에 1군에 복귀했다.

조범현 KIA 감독은 15일 히어로즈와 목동구장 경기에 앞서 7월16일 2군으로 내려간 한기주를 엔트리에 등록했다. 한기주는 오른쪽 팔꿈치 인대를 다쳐



그동안 2군에서 재 활에 힘썼다. 2군 4 경기에서 9이닝 동안 4실점했으며, 12일 삼성 2군과 경기에서는 2이닝 동안 삼진을 3개 잡으며 점수를 내주지 않고 호투하며 페이스를 회복했다.

연립뉴스

KBO 포스트 시즌 일정 확정

역대 최대 관중 신기록을 세우며 사상 유례없는 열기를 더하고 있는 올해 프로야구가 오는 29일 포스트시즌을 시작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이날부터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우선으로 순연되는 경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을잔치' 첫 경기인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오는 29일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의 잔여 경기가 비로 연기돼 포스트시즌 경기 일정과 중복될 경우에는 페넌트레이스 종료일과 포스트시즌 개시일 사이에 최소한 하루 이동일을 두기로 했다고 KBO는 설명했다.

현재 남은 32경기 중 30경기는 25일까지 모두 끝난다. 잔여경기 일정 발표 이후 순연된 2경기는 별도로 편성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비로 미뤄지는 경기가

없다면 준플레이오프(3선승제) 1.2차전은 29, 30일 3위팀 홈구장에서 열리고 3.4차전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2,3일 4위팀 홈구장에서 개최된다. 준플레이오프 5차전은 하루 쉬고 10월5일 3위팀 홈구장으로 다시 이동해 치러진다.

플레이오프(3선승제)는 10월7,8일 정규리그 2위팀 홈구장에서 1.2차전이 열린다.

3.4차전은 10월 10,11일 준플레이오프 승리팀 홈에서 펼쳐지고 5차전은 하루 이동일을 가진 뒤 10월13일 2위팀 홈에서 치른다.

플레이오프는 지난 시즌 4선승제였으나 올해는 3선승제로 환원했다.

올시즌 프로야구 챔피언을 가리는 대망의 한국시리즈는 우선 순연일 없이 진행된다면 10월15일 정규리그 1위팀 홈에서 1차전을 갖는다.

한편 KBO 이사회는 대한야구협회 지원금을 지난 해 보다 1억원 증가한 14억5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연립뉴스

'음주 물의' 정수근 은퇴

음주 사건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두 번째 무기한 실격 처분을 받은 정수근(32·전 롯데)이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정수근은 15일 프로야구선수협회에 직접 작성한 은퇴서를 보내 그라운드를 떠나는 심정을 담담히 밝혔다. "2009년 8월31일 이후 많은 생각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

하고 억울해하기보다 반성을 많이 했다"며 글을 시작한 정수근은 '모든 게 제가 쌓아온 이미지 탓이다.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 않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썼다.

연립뉴스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걷기대회 D-4

걸음 걸음에 기능인 후배들 응원

"건강을 함께 지켜요"

■ 엠코코리아

기능인들의 축제를 함께하기 위해 엠코코리아가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기념 마라톤·건강걷기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세계 반도체 조립시장의 선두주자임을 자부하는 엠코코리아는 아남반도체의 명성을 이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힘을 더하고 있다.

엠코코리아는 서울, 부평 그리고 광주에 공장을 두고 있고, 첨단단지에서 위치한 광주 공장(공공장 광개성 전무)에는 2천300여

명의 직원이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 생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라는 자부심으로 반도체 생산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광주 공장에는 마라톤 클럽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을 만큼 마라톤에 대한 열정도 뜨겁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25명의 범빙 라인 식구들이 마라톤 대신 걷기부분에 출전하게 된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벗어나 함께 호흡을 맞추며 참가자들끼리 친목을 다지고, 또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기능경기대회를 축하하며 산업

현장의 후배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힘차게 첫 걸음을 뚝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걷기 참가를 선택했다.

기능대회 축하의 장 만들기

팀원들의 걸기를 독려하고 있는 이태규 차장은 사내 마라톤 클럽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풀코스를 소화할 정도의 실력파다. 이 차장은 "마라톤을 좋아하지만 마라톤에 익숙치 않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걷기에 출전한다"며 "함께 걸으면서 계속도 다지고, 다른 직원들이 마라톤에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능인들의 축제인 전국기능경기대회 축하를 위해 엠코코리아 직원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기념 마라톤·건강걷기대회에서 함께 걸음을 걷게 된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지만 기능인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걷기에 도전하는 직원도 있다. 기능 올림픽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김흥태 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 과장은 "평소 걷기 등 운동을 잘하지 않지만 기능인 후배들의 축제에 선배로서

힘을 주고 응원을 보내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